

축 사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푸르름이 더해가는 생동의 계절에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는 제39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지역 사회발전의 일원으로 열심히 살아가시는 여러분께 힘찬 박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권익보호와 사회인식 개선에 힘쓰시며, 오늘의 행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완도군장애인연합회 이삼식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신우철 군수님, 신의준, 이 철 도의원님, 완도군의회 허궁희 부의장님, 우성자, 박인철, 김양훈, 이범성, 최정욱 의원님을 비롯한 기관사회단체장님과 내외귀빈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장애인여러분!

삶을 가장 빛나고 자랑스럽게 만드는 것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십분 발휘하면서 당당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거라 생각합니다.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고도화됨에 따라 신체적 제약으로 불편함을 겪는 장애인 여러분들의 자립의지를 북돋우고 희망을 가지고 차별 없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군 의회에서 애정을 갖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뜻깊은 행사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손잡고 함께 가는 사회를 앞당기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제39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축하드리며, 완도군장애인총연합회의 무궁한 발전과 장애인 가족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